

컴퓨터·휴대폰만 있으면 어디서든 중고차 경매!

현대글로비스, 비대면 경매 서비스 ‘오토벨 스마트옥션’ 론칭



“컴퓨터, 휴대폰 등 인터넷 연결이 되는 기기만 있으면 그곳이 중고차 경매장이 된다. 더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 현대글로비스가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기반 비대면 경매 서비스 ‘오토벨 스마트옥션’을 론칭했다.

오토벨 스마트옥션은 현대글로비스가 매주 경기 성남 분당(화요일)과 시화(금요일), 경남 양산(목요일)의 경매장에서 독자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오프라인 중고차 경매를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해 하나로 통합한 디지털 경매 시스템이다.

각각 진행되는 경매 정보를 하나의 서버를 통해 실시간으로 통합·공유해 경매 사용자인 중고차 매매업체의 편의성을 높이고 3배 많은 매물 정보를 제공한다.

종전에는 각각의 경매장 서버로 분리 처리되던 중고차 매물 정보를 하나의 대형 클라우드 서버에 모아 종합 관리하게 되면서 경매장 3곳에 출품된 중고차의 세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실시간 원격 입찰이 가능해졌다.

현대글로비스에 등록된 1천900여개 중고차 매매업체는 앞으로 지역과 관계없이 일주일에 세 번 열리는 모든 자동차 경매에 오프라인 경매장은 물론 어느 장소에서든 모바일 기기를 통해 참

여할 수 있게 됐다.

현대글로비스는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경매 서비스로 출품 차량이 많아질 것에 대비해 맞춤형 ‘4-레인(lane) 실시간 입찰 시스템’을 구축했다. 출품된 중고차를 차종, 연식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4개의 레인으로 나눠 배치하고 매매업체가 원하는 특정 레인을 선택해 신속하게 입찰에 참여하게 하는 방식이다. 1개의 레인으로 운영되던 경매에 비해 평균 경매 시간이 약 60%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전 출품 차량의 360도 실내 이미지를 회원들에게 제공해 온라인으로 꼼꼼하게 내부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글로비스는 오토벨 스마트옥션을 기반으로 경매산업이 성장하면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한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오토벨 스마트옥션 서비스는 경매 시스템의 디지털화를 실현해 매매업체와 출품인의 편의성을 극대화한 중고차 도매의 혁신적인 모델”이라며 “자동차 경매가 국내 중고차 매매시장의 선진화를 이끌 수 있도록 지속해서 신규 시스템을 개발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